

韓·中 문화교류의 허브 역할 기대

2일, 칭따오에 장안사 분원 개원법회 양국 300여명 참석 ... 한국 범패시연도

중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수행과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 중심이 될 한국사찰 장안사(長安寺)가 중국 칭따오(淸道)에 건립됐다.

경기도 일산 장안사주지 병진은 9월 2일 칭따오 석노인관광원 현지에서 '장안사 중국분원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포교에 나섰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안치영 칭따오 총영사관 영사, 곡효탁 칭따오주임 등 한·중 양국의 현지 관계자를 비롯해 장안사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서 칭따오를 찾은 교양사 사암연합회(회장 도명) 소속 10여개 사찰 스님, 신도 150여명과 현지 교민, 조선족, 중국 현지인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장안사 개원법회에 앞서 도명 스

님은 대웅보전에서 부처님 점안의 식을 증명하고 "머나먼 중국에 한국 사찰을 건립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중국에서 제일가는 도량으로 거듭나 먼 훗날 신라방 법화원 같은 대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개원식에서 병진 스님(중국 칭따오 장안사 회주)은 인사말을 통해 "수년전부터 현지 교민들을 위한 정신적 구심점으로 사찰건립 원을 세웠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장안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발전 교류는 물론, 양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형근 한국칭따오 총영사관은 축하사에서 "칭따오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9월 2일 열린 개원법회.

있는 곳으로 이곳에 한국사찰이 건립된 것을 계기로 중국에 부처님의 자비가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측에서 곡효탁 칭따오주임도 축하사를 통해 "장안사 개원으로 칭따오에서 한국 민속 문화가 빛날 뿐 아니라 양국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날 개원식에는 서울 봉원사 혜경 스님을 중심으로 12명의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이수자 스님들이 불교의식을 시연, 칭따오 중국현지인에게 처음으로 한국 불교법패를 선보였다.

글·사진/중국 칭따오-이준엽 기자



중국 칭따오 한국사찰 장안사 전경. 대지 1500여평에 대웅보전(40평), 요사채(40평), 공양간(80평) 등의 전각이 중국건축양식으로 건립됐다.

■ 칭따오 장안사는

'무공해 사찰음식점' 운영 통한 재정 자립 주변 생태공원 지정, 향후 사찰 연계 기대

중국 장안사는 중국의 니콜리로 불리는 칭따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석노인공원지구내에 자리해 있다. 해변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석노인공원지구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돼 칭따오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장안사 옆에 대형 '생태박물관'이 들어서 등 생태농업과 차단지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사찰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대된다.

대불산 자락에 해변을 끼고 있는 장안사는 대지 1500여평에 대웅보전(40평), 요사채(40평), 공양간(80평) 등의 전각이 중국건축양식으로 건립됐다. 특히 장안사는 생태공원지구와 연계해 공양간을 '무공해 사찰음식점'으로 개방,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100년 전만 해도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칭따오는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상업 도시. 15년부터 한국기업이 칭따오에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이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 칭따오 경제를 한국기업이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칭따오에는 교민 6만여명, 조선족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미 개신교 측에서 선교에 앞장서 교회와 성당 5-6개가 있다.



참석자들이 개원을 알리는 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인터뷰

■ 장안사 창건주 병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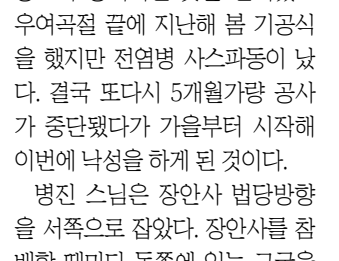


"이제 시 작입니다. 겨우 집이 마련됐으니 본격적으로 포교 해야죠." 3년 전 칭따오를 방문했다가 교민들로부터 뜻하지 않게 사찰건립 요청을 받은 병진 스님은 그때부터 이제까지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법당 고국 향하도록 건축 "한국인 보금자리 되길"

교민들의 요청이란 '주말이면 갈 곳이 없으니 정신적 구심점이 될 사찰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국은 주5일근무제여서 주말이면 교민들 대부분이 주점이나 골프, 관광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한번 해보자"고 발심하자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칭따오 정부에서 선뜻 석노인관광지구를 주선했고 불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해방이후 최초의 한국 사찰 건립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 장안사 주지 선혜 스님



"포교는 물론 지역 교민에게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라기보다 부전스님으로 생각하고 뛰겠다"는 장안사 초대 주지 선혜 스님은 "지역민이 쉽게 찾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교·회합에 노력"

선혜 스님은 이를 위해 "정기법회와 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해 불교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장안사 위치가 좋아 주민과 교민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교민들에게 사찰을 사랑방처럼 열린 공간으로 제공해 포교와 교민회합에 일조 하겠다"고 강조했다. 평소 해외포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선혜 스님은 "국내불자들에게는 장안사가 중국 성지 순례의 거점사찰이 되어 편안한 성지순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잉어

■ 방생(放生) - 방생이란 죽음을 직면한 생물을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생이란 (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이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는 의미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방생은 이타(利他)의 방생입니다.

삼가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 하옵습니다.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포교 일선에서 중생제도에 혼신에 힘을 기울이시는 주지스님께 엎드려 삼배 올립니다. 금일 제가 정월방생법회에 황금잉어를 소개코자 펜을 들었습니다. 잉어는 공동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류중에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또한 황금색은 왕을 상징 하기도 합니다. 오랜 행실도, 신이당, 등용문, 한국민화 등등 많은 곳에서 잉어를 길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잉어에 관한 몇가지만 소개 올립니다.

오른명실도

- 크기는 15cm이상
- 10일전까지 전화예약
- 수량 100마리 이상
- 콜센터비용은 별도부담

용문

중국 황하의 최상류에 있는 협곡을 말하며 그 지방에서는 하진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이 용문의 협곡은 물흐름이 거센 높은 폭포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폭포 밑에 있는 강에는 거센 물기둥을 거슬러 올라 가고 싶어 하는 많은 잉어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나 웬만한 잉어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 가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연승을 거듭하고 용기와 슬기를 터득한 잉어는 기어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며 등쪽한 잉어는 용으로 화신하여 등천한다는 전설에서 용문 또는 등용문이라 불리워졌으며 중국의 과거(관리 등용 시험)를 등용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잉어에 관한 중국 사상이 잉어와 함께 일본에 전래되어 일본에서는 남 자 아이를 낳면 5월 단오절에 '고이노리보리'라는 창조지나 천으로 만든 커다란 잉어 기구를 지방 위에 띄어 놓고 이들의 출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동양의 중국에서는 공자가 잉어를 지혜와 슬기의 상징으로 중히 여겼고, 실제 중국에서는 옛부터 잉어를 용문 잉어라 하여 과거이나 출세어로 여겼다는 고사가 있다.

끝까지 봐주신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성불 하시어 인류에 스승이 되시길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 사 석가모니불...

황금잉어 유통 총판 천안시 원성동 450-8번지
TEL: (041)622-4985 / H·P: 018-690-4985